

단기 4334년 겨울호 제45집 계간

2001
지역문화의 해



安山文化



安山文化院

安山東軒韻

拙翁 洪聖民

冷雲飄雪掠前山

찬 바람 눈보라 앞산을 때리고

一味艱辛在客間

고난과辛苦가 객間에 가득하다.

何處牛衣茅屋裏

어디서牛衣를 입고 茅屋에 살고

閉窓朝日不知寒

창닫고 朝日를 보지 않고 寒을 모르리.

안산시민의 노래

씩씩하고 진취적으로

이정태 작사
김동진 작곡

씩씩하고 진취적으로

이정태 작사
김동진 작곡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It consists of six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lyrics are as follows:

겨레의 슬기 모아 이룩한 터전 위 에 광 덕 산 정 기
 새역사 다져 가 는 겨레의 터전 위 에 서 해로 뻗 어
 타 고 는 우 뚝 솟 았 기 내 상 모 내 두 가 힘 을 모 아 해
 세 우 고 가 꾸 어 서 살 기 좋 은 내 고 장 이 룩 해 보
 세 다 등 고 가 꾸 어 서 살 기 좋 은 내 고 장 이 룩 해 보
 세 세 그 이 음 안 산 안 산 우 리 의 요 람 희 사
 망 랑 의 고 을 이 다 꽃 피 우 세

季刊

安山文化

단기 4334년
서기 2001년

겨울호 제44집

顯字 : 東場 金春泰



권두시 / 안산동현운	2	홍성민
권두언 / 2001년을 되돌아 보며	6	안산문화원장/이정태
논고 I / 조선후기 경기지역과 문화예술의 신경향	8	한신대 국사학과/유봉학
논고 II / 실학과 과학기술	15	서울대 강사/신동원
안산문단		
그 속에서	25	송은혜
도공의 기도	26	정순용
힘	27	염연숙
스승	28	김성훈
도자기	29	김정은
힘	30	김미연
함께! 하나의 힘으로	31	김소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 이었다	33	이혜정
이웃과 함께	35	정세은
이웃	37	김용훈
한국인	38	김순애
스승	39	이명희
함께	41	최희진
함께	43	황세연
우리는 문화가족	45	편집자

표지설명

대부도 염전동의 「판심」

◆ 계간 안산문화

◆ 2001년 겨울호

◆ 인쇄일 / 2001년 12월 18일

◆ 발행일 / 2001년 12월 23일

◆ 발행처 / 안산문화원

- 전화 : 480-9823

- 전송 : 480-9824

- 홈페이지 :

ansanculture.or.kr

◆ 발행인 / 이정태

◆ 편집인 / 이현우

◆ 인쇄처 / 가야기획

- 전화 : 494-8354

《비매품》

이 책은 안산시의 지원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안산문화원에 실린 글은 편집자 개인의 의견이며 안산문화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1년을 되돌아 보며

지난 한해는 安山文化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하겠다.

우선 최용신 선생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지난 2월에 있었다. 2001년 2월의 문화인물로 최용신 선생이 지정되어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성호 이익선생에 이어 우리고장에서 이달의 문화인물이 네분이나 선정된 것은 安山文化 창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지적이다.

예산면에서는 미약하긴 했지만 심포지엄을 비롯해 유훈비(遺訓裨)를 세웠다.

백일장 또한 예상외로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어 좋았다.

지난 5월에는 성호 이익선생을 기리는 제6회 성호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서 기뻐다. 이 문화제는 해를 거듭 시민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을 특기해 둔다.

10월에는 사할린 동포를 위한 「한가위 축제」가 고향 마을에서 한민족의 제전으로 배풀어져서 동포들의 한 마음 됴을 보여 주었다.

실학(實學)의 대가(大家)이신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은 85%의 공정을 마쳤고 여러 차례의 모임으로 유품기증에다 사료 및 자료를 모두 구입하였다. 특기할 것은 선생의 후손인 이돈형씨가 상당이 많은 유품 및 자료를 기증한 점이다.

끝으로 대부도향리지(大阜島鄉里誌) 발간사업을 들을 수 있다. 지난 10월 24일 발간 출범식에 이어 현판식을 가졌고 3회의 자료조사위원회, 편찬위원회도 세차례를 가져 충분한 자료를 발굴하였다. 현재는 발간(發刊)을 서두르고 있는데 예



安山文化院長
李鼎泰

산이 넉넉치 못해 유감이나 대부도 지역 유지들과 대부출장소공무원들 및 자료조사위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싶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은 실적(實績)을 거두게 되는데는 본 문화원 여러 이사님과 문화가족들의 성원에 힘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첨기 해둔다.

새해에는 더욱 알찬 전통문화행사에 혼신의 힘을 바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 옴니버스(omnibus) → 모음(집)

【용례】 이번에는 신세대 텔런트 이요원을 표지 모델로 기용한 클래식 옴니버스앨범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미테이션 모델(imitation model) → 닭은꼴 모델

【용례】 흔히 ‘이미테이션 모델’로 불리는 이들을 미국 광고 업계에서는 임퍼스네이터라고 부른다.

■ 에이전시(agency) → 대행사

【용례】 미국 내에서는 이런 모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이전시가 상당수 있어, 패러디 마케팅을 원할 경우 이 회사들을 이용한다.

■ 콘솔 박스(console box) → 정리함

【용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 박스

■ 환리스크(換risk) → 환차 손실

【용례】 하지만 해외 투자에는 환리스크 등 주의할 점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 버전(version) → 판

【용례】 다소 어긋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바람에 뒤로 가면서 ‘만화 버전 고금소총’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져 아쉽다.

■ 앵글(angle) → ① 시각 ② 촬영 각도

【용례】 이보다는 더 구조적인 사안을 지적해야겠다. 장면 전환이 다이내믹하지 못하다는 약점 말이다. 앵글이 단조로워 그런 것이다.

■ 포지션(position) → ① 위치 ② 자리

【용례】 포지션별료2명 이상의 선수들을 뽑는 계획에 맞춰 선수들을 살펴줬다.

조선후기 경기지역과 문화예술의 신경향

유봉학(한신대 국사학과)

조선전기에 여러 차례 사화(士禍)를 겪으며 향촌사회로 물러났던 사림(士林)이 급기야 중앙정계에서 훈척(勳戚)세력을 쥐고 조선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선조 대(宣祖代, 1567~1608) 이후의 일이었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 이래의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과 명분론을 이념으로 하여 대두하였던 사림들은 향촌사회를 근거로 중앙에 진출하여 학문정치(學問政治), 공론정치(公論政治)를 특징으로 하는 봉당정치(朋黨政治)를 구현하였으며, 사회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조선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양란(兩亂)의 국가적 위기를 맞았음에도 전국 각처 사림들의 적극적 역할로 이를 수습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 사림은 향촌에 머물던 재야 산림학자(山林學者)의 지도를 받으며 각처의 서원(書院)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향촌사회를 배경으로 하였던 사림의 학문은 주자주의적(朱子主義的) 의리지학(義理之學)의 경향성을 띠면서 발달하였고, 사림들은 이 이론적 토대 위에 성리학적 이상사회와 예치(禮治)의 질서를 추구하였다. 이에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해 가고 사림 중심의 성리학 문화가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가 하면 중원에서 오랑캐 청(淸)이 정통 중화왕조 명(明)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야기된 국제질서의 변화와 병자호란 이후 고조된 조선 내부의 북벌대의론(北伐大義論) 등은 조선이 곧 중화(中華)라고 하는 조선중화의식(朝鮮中華意識)을 성립시켜 조선의 문화자존의식(文化自尊意識)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이 또한 조선후기 문화예술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숙종 연간(1674~1720)은 양란의 상처를 밀고 일어나 조선이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양란 이후의 위기감에서도 서서히 벗어나며 조선사회는 생산력 증대와 유통경제 발달을 배경으로 역동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 특히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서 국제무역로를 따라 중국 일본과도 연결되었던 서울(京華)은 커다란 도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후기 경기지역과 문화예술의 신경향

인구 20여 만이 집결한 대도시로서 서울은 조선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였으며 서울에는 서울만의 독특한 도시적 생활상이 성립하였다. 서울 생활권(수도권)이 점차 경기지역 일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적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서울을 높이고 지방(시골)을 천시하는 귀경천향(貴京賤鄉)의 풍조와 경·향(京鄕)으로의 사회적 분기(分岐)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사람도 분화하여 서울과 교외(京郊)의 경기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경화사족(京華士族)층이 형성되어 장차 조선사회를 이끄는 새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숙종대 후반 이후 경·향의 사회적 분기 속에 전개된 탕평정국(蕩平政局)과 호락논쟁(湖洛論爭)은 경화사족이 조선의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술환국(甲戌換局 : 숙종 20년, 1694) 이후 영남지방을 근거로 한 남인이 실세하고 노론과 소론이 주도하는 정국이 전개되었으며, 다시 이들 내에서 서울 경기지역 사람과 호서지역 사람이 분기하는 정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정치운영원리로 탕평론(蕩平論)이 제기되고 여러 정치세력의 조제보합(調劑保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화사족이 현저한 정치적 진출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이는 경·향으로의 학계 분위기 양상과도 짝하는 현상이었다. 남인 내에서 경남(京南)과 영남(嶺南)의 분기가 나타나 기호남인과 영남남인이 분기하였으며, 100여년 간 진행되었던 노론학계의 호락논쟁 과정에서는 노론 경화사족들이 낙론(洛論)으로 결집하여 호서지역의 호론(湖論)에 대하여 점차 우위를 차지하여 갔다. 더욱이 영조대 이후 조선정계와 학계를 주도하게 된 노론의 낙론에서는 산림의 문하 학자들이 관료학자로 전환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해 가는 가운데, 재야 산림학자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경·향으로의 학계와 정치적 분기양상이 더욱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실상 조선시대 문화의 절정을 구현하였던 ‘진경시대(眞景時代)’ 문화는 숙종대 이후 이들의 주도적 역할과 사상적 문화적 지향에 따라 영·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인상적 전개를 보이게 된다.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翊, 1653~1722), 사천 이병연(槎川 李秉淵, 1671~1751) 등 서울 ‘백악사단(白岳詞壇)’의 문사들에 의해 주도된 진경시 문풍(眞景詩文風)은 물론이고,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 관아재 조영석(觀我齋 趙榮錫, 1686~1761),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緒, 1668~1715) 이후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1707~1769)과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 등에 이르기까지 화

논고 I

려한 전개를 보인 진경산수(眞景山水)와 풍속화(風俗畵) 등 동국진경(東國眞景) 회화, 옥동 이서(玉洞 李澈, 1662~1723) 이후 백하 윤순(白下 尹淳, 1680~1741), 원교 이광사(員嶠 李匡師, 1705~1777), 송하 조유행(松下 曹允亨, 1725~1799)으로 이어간 동국진체(東國眞體) 서예 등 개성적 문예의 창출은 서울의 도시적 변영과 개방적 분위기를 호흡하며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화사족층에 의해 선도되었다. 겸재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 사실적으로 묘사된 서울과 한강 유역 경교(京郊)의 여러 지역이야말로 이들의 생활무대였다. 이들은 조선성리학과 명분론에 기초한 문화적 자신감(文化自尊意識)과 건실한 사의식(士意識) 위에 우리의 정서와 자연산천, 의관 풍물(衣冠風物)을 재인식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문학과 예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조선후기에 우리 전통문화가 도달한 높은 정점이 되었다.

영조대(1724~1776) 이후 경화사족층은 서울 시정의 위향인(委巷人)까지 포함하는 한층 확대된 외연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경화사족층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역에 살면서 누대에 걸쳐 벼슬을 하고 정권에 참여하였던 일부 문벌은 경화사족 가운데서도 경화거족(京華巨族)으로 대두하는가 하면, 일부는 벼슬길에서 벗어나 몰락하기도 하는 등, 경화사족층의 확대와 함께 이들 간의 계층분화도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士, 선비)의 위상 변화와 서울로부터 가속화되던 조선사회의 역동적 변모를 의식하며, 사회의 지도적 지식인으로서 사의 책임과 역할을 각성하는 사상적 공감대의 형성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주자학과 명분론의 수정을 도모하면서 조선사회 지도 이념의 재정립을 피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상과 문화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화사족 학자와 지식인들은 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 위에 신분과 당색을 넘어선 확대된 교유권을 형성하면서 개방적 사고로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갔다. 성호 이익(星湖 李瀼, 1681~1763) 이후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과 금대 이가환(錦帶 李家煥, 1742~1801),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등 일군의 기호남인과 소북 계열 학자들은 물론, 보만재 서명응(保晩齋 徐命膺, 1716~1787), 이계 홍량호(耳溪 洪良浩, 1724~1802), 월암 이광려(月巖 李匡呂, 1720~1783) 이하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구, 1764~1845), 석천 신작(石泉 申綽, 1760~1828) 등 소론의 경화사족 학자들, 그리고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 담헌 홍대용(湛軒 洪大容, 1731~1786), 아정 이덕무(雅亭 李德懋, 1741~1793), 영재 유득공(淸齋 柳得恭, 1749~

조선후기 경기지역과 문화예술의 신경향

1807), 조정 박제가(楚亭 朴齋家, 1750~1805), 척재 이서구(楊齋 李書九, 1754~1825) 등 연암일파(燕巖一派) 학자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그들간의 상호 교류 위에 기존사상의 재정립과 학문 및 문화예술의 발전적 극복을 시도하면서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표현되는 이념적 지향성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조선의 전통문화와 문화자존의식을 존중하고 그를 계승하면서도 국제문화 조류로부터 유리되어 낙후되어가던 조선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고 조선 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조선사회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충만한 변화와 발전의 추세를 가속화하고자 하였으며, 여기 에 수반되는 사회이념과 문화의 혼란, 그리고 경·항의 극단적 분기 현상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누대의 서울생활로 소비적으로만 흘러가던 경화사족의 생활을 반성하고 사회지도층으로서 사의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켰으며, 실용적 학문의 연구와 생산활동에 주도적 참여를 촉구 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달성하려 하였다. 이들은 사의식(士意識)을 재정립하고 기존의 문화자존의식과 북벌대의론을 반성함으로써 북학(北學)을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학(西學)을 수용하기도 하면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적극적 융합을 통하여 조선 사회와 문화의 혁신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다.

전통적 사상과 문화를 혁신하려는 경화사족 지식인들의 주체적 노력은 정조대(1776~1800) 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북학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조 문물과 학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학풍과 문풍[新學, 新文]이 서울의 소장학자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었다. 산림학자와 전통주자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사회지도이념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변화에 민감하였던 경화사족층이 성리학 외에 이단적 사상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측면들이 문화예술 활동에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정조의 지원을 받으며 규장각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정조측근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국왕으로서 이를 견제하려던 정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조의 비원(悲願)을 담아 김홍도가 주관하여 그려낸 용주사(龍珠寺) 대웅전(大雄殿)의 [후불탱화(後佛幀畵)]가 이런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체반정(文體反正)과 서학 대책, 그리고 화성신도시 건설과 을묘원행(乙卯園幸 : 1795년 윤2월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여 혜경궁의 회갑연을 벌인 일) 과정 등 정조대의 여러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활동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듯이 정조

논고 I

연간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문화적으로 이처럼 혁신의 노력과 갈등이 함께 분출되었던 시기였다. 조선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와 중국문화, 나아가 서구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이질적 요소들의 새로운 융합이 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이와 함께 경화사족 간에는 당색과 신분을 넘어선 개방적 교유가 성립되었으며, 위항인과 불락 양반층으로부터 경화거족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된 외연을 가지게 된 경화사족층의 새로운 생활경험과 관심범위, 지향성에 입각하여 학문과 문화예술적 경향도 다양한 전개를 보이며 변화하여 갔다.

이런 가운데 정조의 측근 소장학자들에서부터 북학과 서학의 추구가 노골화되자, 그 과문은 정조와 정조조정의 관료학자들에서부터 경화학계와 사상계 전체로 확산되었다. 전통주자학과 외래의 사상, 학문을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를 둘러싼 정학(正學, 주자학)과 사학(邪學)의 갈등이 야기되어, 1790년대 이후 문체반정(文體反正) 사건과 일련의 사옥(邪獄) 사건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서울만의 독특한 도시적 양상과 생활상이 성립하고 이제는 사족으로서의 속감을 가지며 경화사족을 자처하게 된 부류들의 사상적 문화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위항문화활동이 난만한 전개를 보이는 가운데, 자신들의 생활경험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활동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경직도(耕織圖)]류의 농촌풍속도 외에 [성시전도(城市全圖)] [화성전도(華城全圖)]류의 도시풍속도가 등장하고,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와 같은 사인(士人)풍속도와 서민(庶民)풍속도가 함께 발전하였으며, 도시적 삶과 생활경험을 노래하는 풍속문학이 유행하였다. 이와 함께 주자학적 명분론의 규제를 뚫고 속태(俗態)와 색태(色態)가 문화예술의 새로운 면모로 나타나 자유 분방하게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농업과 상업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 추세를 가속화하는 분제와 관련하여 경화사족 학자들 사이에서 우선은 이를 선도해야 할 사(士)의 역할과 사의 학문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었다. 박지원의 『양반전(兩班傳)』과 『허생전(許生傳)』 등 일련의 소설에서 형상화되었듯이, 소비적으로만 흘러갔던 경화사족의 생활에 대한 반성에서 생산활동에 대한 관심과 민에 대한 지도능력의 회복이 요구되었으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처럼 경·향의 사회적 분기에 따라 확연히 절연되어 버린 서울의 도시적 생활과 향촌의 임원 생활,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경화사족의 학문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조선후기 경기지역과 문화예술의 신경향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정책으로도 수렴되었다. 정조대 후반에는 화성(華城)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외곽 동서남북의 사유수부(四留守府, 개성, 강화, 광주, 화성) 체제가 완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농업과 상업의 발달 성과를 위시한 수도권의 변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정책방향도 나타났다. 정조가 노후의 근거지로 삼으려 했던 화성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도시기반시설과 도시환경, 만석거(萬石渠)와 대유둔(大有屯 : 국영농장) 등 선진적 생산기반시설을 갖춘 자족적 신도시로서 구상하고 설계하여, 농업과 상업 발달의 시범도시가 되도록 건설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여 간 정조시대는 다양한 경향성에 대한 포용과 융합의 노력이 경주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상적·문화적으로 혁신의 노력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러나 미구에 여러 사회세력과 경향성 사이에 잠복하였던 갈등이 분출되어 절정에 도달한 경화사족의 진경문화는 위기에 봉착하고, 일면 급변과 조락의 조짐도 보이게 된다.

정조 서거 이후 정치적 격변이 몰아치는 가운데 조선 문화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었다. 외척(外戚) 등 소수 경화거족이 참여하는 세도정국(勢遵政局)의 전개로 사림정치가 파탄되고, 탕평정국을 주도하였던 경화사족이 분해되어 나갔으며 이들의 사의식과 현실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서울의 소수 세도가와 경화거족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이들에게 민과 유리된 소비적이며 퇴폐적인 삶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지배층과 기층민의 분기와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정치적 억압이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통합의 노력과 혁신의 의지를 퇴색시키는 가운데 복학과 서학을 수용하여 가던 부류 내에서도 그들의 위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사회적 분기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경향성 사이의 대립의 격화로, 서울에서는 외래의 청조(淸朝) 문물과 학예가 풍미하는 가운데 한학(漢學, 고증학) 송학(宋學, 주자학)의 분기 등 학문적 갈등과, 아(雅)와 속(俗)의 미의식, 예술적 지향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사회적으로 경(京)과 향(鄕)의 분기, 사(士)와 민(民)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학(正學)과 사학(邪學, 천주교), 서학(西學)과 동학(東學)의 대립과 같은 극단적인 사상적 갈등도 야기되었다. 문예에서는 속태, 색태의 통속성이 난만하게 추구되면서 이제는 주자학적 명분론과 도덕률에서 벗어나 인간 욕구의 자유로운 표출을 정당화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논고 I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된 이러한 양상은 조선성리학과 그 명분론, 그리고 문화자존의식 위에 수립되었던 전통적 사회질서와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던 시대 상황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전통사회체제의 청산과정이면서 조선 후기 사회 발전의 귀결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변화된 사회현실은 전통 성리학과 문화자존의식에 입각하였던 진경문화의 퇴조와 조선문화의 전면적 변동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성리학적 질서와 명분론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이념과 사회를 추구하였다.

조선성리학과 명분론이 사회이념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사상적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경·향의 분기와 민(民)의 동요가 심화되었던 이 시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도도한 물결에 휩싸이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선사회를 이끌던 사림의 사상적 공감대는 무너지고 이들의 정치의식, 사의식(士意識)과 문화는 혼란에 봉착하였다. 혼돈 속에 던져진 이 문제들을 수렴하여 차원 높은 대안을 마련하고, 외래문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 사회체제와 문화를 창출하는 일이 순조대 이후조선의 역사적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전재를 허락한 경기도 박물관측에 감사 드린다.)

실학과 과학기술(科學技術)

신동원(한국과학사, 서울대 강사)

1. 실학의 핵심으로서 과학기술
2. 전통 과학기술과 ‘실학적’ 과학기술
3. 실학적 과학기술의 시기별 흐름
4. 실학, 과학기술, 그리고 경기도

1. 실학의 핵심으로서 과학기술

우리는 실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초정 박제가, 담헌 홍대용 같은 이들이다. 또 실학 하면 떠오르는 과학기술들이 있다. 지전설, 거중기, 종두법 등이 그것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의 학문과 실천을 일컬어 실학이라 부른다. 그런데, 사실 실학이란 말은 모호한 말이다. 실학이니 허학이니 하는 것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면 성리학이나 불교, 도교 따위는 모두 허학이고 자신만이 실학이 되지만, 거꾸로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주교는 허학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지닌 가치관에 따라 허와 실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

또 실학이란 개념과 말이 조선 후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전에도 실질을 숭상하는 학문 전통이 어찌 존재해 있었다. 예를 들어 고려 말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화약과 화포를 만든 일이나 세종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국산 약인 향약을 연구하고 장려한 일이 실학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인가? 이런 예는 수도룩하다 이렇게 본다면 실질을 숭상한다는 뜻의 '실학'은 어느 특정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역사에 걸쳐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17세기~19세기에 걸친 특정한 학문 경향만을 실학이라 이름 붙여 부른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당대의 입장을 보면, “자신이 이전의 학문(성리학으로 대표되는)과 다른 학문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학문 전통을 이루어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

논고 II

면, 그들이 추구하는 학문(곧 실학)이 근대 이후의 학문 정신(곧 실증과 물질적 효용의 추구)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더 ‘실학’을 값지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학자들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체로 나라 체제의 정비, 신지식의 정리와 활용, 민생의 향상 등의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왜란과 호란 이후 국가 정비의 필요성의 대두, 대동법의 실시로 상징되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중국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문물과 정보(천주교와 서양 과학기술로 대표되는)의 자극, 꾸준한 ‘민’의 성장 등의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은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주제이다. 엄밀한 실증과 계산을 통해 사물에 대한 좀더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기기나 도구의 발전을 통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깐 국제적인 데로 시각을 넓혀 본다면, 17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근대과학의 놀라운 성취가 있었고, 그것은 서양 사회를 근대사회로 이끄는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정도는 서양보다 훨씬 미약했지만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실증에 바탕을 둔 지식, 물질적인 효용을 낳는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등장했다. 어찌 보면, 조선도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엇인가 변하고 있었고, 또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그러한 변화 또는 변화에 대한 믿음의 저변에는 과학기술이 놓여 있었다. 나는 오늘의 강연 발표에 “실학과 과학기술”이란 주제가 포함될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 전통과학기술과 ‘실학적’ 과학기술

흔히 전통적인 과학이라 하면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체계로 이해되고, 기술이라 하면 인간의 도구적 행위로 정의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전통과학기술에는 자연과 사물의 이치에 관한 학문인 격물학(자연관), 하늘에 관한 학문인 역법(천문학)과 천문(점성학), 땅에 관한 학문인 풍수와 지리학, 사람의 생명에 관한 학문인 의학과 양생술, 수와 계산을 다루는 산학, 율려(화성학), 그리고 농학·건축·조선·인쇄·제지·염색 등 각종 기술등이 포함된다.

실학적 학풍이 대두된 시기에도 이런 모든 과학기술이 존재했다. 종교적 색

실학과 과학기술

채가 다분한 풍수지리나 사주팔자가 대단한 유행을 보였다. 심지어 나라에서도 하늘의 천문현상을 보아 점을 쳐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선비들 사이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신비한 느낌이 농후한 양생술이 만연되어 있었다. 오히려 전통과학기술 전체적인 면을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실학적’ 과학보다도 이런 부류의 과학이 더 넓게, 더 깊게 뿌리박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실학적 학풍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얼마만큼 그 사회에서 지배적이었는가 하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실학적’ 과학기술의 내용이 눈에 더 확 뜨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17세기~19세기 사회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실학적’ 학풍이 ‘그렇지 않은’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실학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점성술이나 양생술 따위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해도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에서 ‘실학적’ 학풍이 대두하여 과학기술의 모습이 이전보다 달라진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서 ‘실학적’ 학풍이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주변의 하잘 것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비교, 검토하여 지식을 쌓아 나가려는 경향이다. 당시 실학자들이 쓰던 용어로 말한다면, 명물(名物) 또는 물류학(物類學) 등이 그것이다. 이런 학문적 전통은 자연에 대한 지식의 확충을 가져다 주었고, 그 가운데에는 인간사에 쓸만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는 엄밀함의 추구이다. 특히 우주와 자연이 정밀한 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달력을 만드는 예에서 보듯이 해와 달, 행성의 운행이 정밀한 수로 표현되며, 학자들은 더욱 노력해서 좀더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쓰던 도수학(度數學)이라는 용어가 이를 나타낸다.

셋째는 기구나 기기를 중시한 점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기기학(器機學)이라 불렀다. 기구나 기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정형의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온도계나 습도계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도구는 자연의 현상이나 원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시 실학자들은 정형되는 지식을 쓸만한 지식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공리공론으로 간주하였다. 다른 하나는 효용을 낳

논고 II

는 것으로서 가치를 지닌 다. 예컨대 수차는 물을 퍼 올려 눈에 물을 대는 데, 거중기는 큰 돌을 높은 데에 올려 성을 쌓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 이런 기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에는 복잡한 수학적 지식이 응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실학적 과학기술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과 실험, 정밀한 수학, 물질적 효용이 서로 결합된 지식체계와 기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 시기와 달리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서서히 꽃을 피워 당시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도도한 한 흐름을 만들어 냈다.

3. 실학적 과학기술의 시기별 흐름

실학적 과학기술의 변천은 크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후반 등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7세기는 형성기라 할 수 있고, 18세기는 확대와 심화의 시기, 19세기는 종합의 시기라 할 수 있다. 17세기 실학적 과학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문학 분야에서 김육(1580~1658)의 시헌력 도입과 실시, 김석문(1658~1735)의 지전설 『역학도해』을 들 수 있고, 지리학 분야에서 한백겸(1552~1615)의 역사지리학 『동국지리지』, 이수광(1613~1628)의 서양문물과 세계지리에 대한 소개 『지봉유설』를 들 수 있다. 농학과 농업 분야에서 박세당(1629~1703)의 당대 농업지식의 정리 『색경』, 홍만선(1643~1715)의 백과사전 편찬 『산림경제』, 신숙(1600~1661)의 농학 집대성 『농가집성』을 들 수 있고, 의학 분야에서 『두창경험진』, 『고금경험활유방』 따위의 경험방류의 편찬 등을 꼽을 수 있다.

18세기의 주요 업적으로는 천문학 분야에서 이익(1681~1763)의 지구설, 홍대용(1731~1783)의 무한우주설, 여러 천문학자들이 펴낸 각종 천문역법 책자의 편찬(이를테면 『대동상위고』(1708년), 『세초류휘』(1710년), 『신법중성기』(1789년), 『신법류주통의』(1789년), 『국조역상고』(1796년), 『천세』(1782년) 따위의 책자)을 들 수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 정상기(1678~1752)의 『팔지도』, 신경준(1712~1781)의 『동국여지도』 같은 정밀한 지도의 편찬, 자연환경과 인간거주의 연관에 관한 독특한 이론을 담은 이중환(1690~1753)의 『택리지』 발간을 들 수 있고, 수학분야에서 전통 수학과 서양 수학을 망라한 홍대용의 개수 편찬을 들 수 있다.

농학 분야에서는 17세기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농서인 박지원(1737~1805)의 『과농소초』의 편찬을 들 수 있고, 의학 분야에서는 『동의보감』

실학과 과학기술

을 계승하여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덧붙인 강명길의 『제중신편』 발간(1799년), 구급 치료에 관한 경험방을 모은 이경화의 『광제비급』(1790년), 소아병의 증상과 진단에 새 장을 연 조정준의 『급유방』(1747년) 등의 편찬을 꼽을 수 있다. 기술 분야에서는 당시의 수학, 건축, 토목, 물리기술 등을 망라하여 만든 화성(수원성, 1794~1796)의 축조가 눈부신 성과이고, 박제가의 서양 기술 채택론, 정약용(1762~1836)의 한강 배다리 설계도 이 시기에 나왔다.

19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이른바 세도정치의 시대로 서학을 엄격하게 탄압하던 시기였지만,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았다. 천문학 분야에서는 성주덕이 『서운관지』(1818년)를 펴내 조선 기상학의 전체 체계를 집대성하였으며, 남병철(1817~1883)은 『의기집설』, 『해경세초해』 등을 통해 혼천의 등 천문기구의 제작과 이용 방법, 계산 방법을 정리하였고, 그의 동생 남병길은 『양도의』에서 천문계산과 항해, 측지학에서 중요한 구면삼각법을 푸는 계산표를 제시하였으며,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별의 위치와 밝기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최한기(1803~1879)는 『성기운화』(1867년)라는 책에서 뉴턴의 천문학 체계를 소화하여 소개하였다.

지리학 분야에서 김정호는 그 유명한 『청구도』(1834년), 『대동여지도』(1861년)를 제작하여 우리나라 지도제작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정약용은 『대동수경』(1814년)에서 조선의 14개 강의 발원지, 기본흐름, 가지흐름 등을 밝혔으며, 최한기는 『지리전요』(1857년)에서 세계 지리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밖에 한치윤(1765~1814)은 『지리고』를 지었으며, 김정호는 자신의 답사 경험이 담긴 『대동지지』를 펴내기도 하였다.

의학 분야에서는 수많은 인명을 마마의 피해로부터 건져 올린 이종인의 『시종통편』(1813, 인두법)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우두법도 정약용 등에 의해서 수입되었지만 인두법처럼 널리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홍역전문서라 평가받는 정약용의 『마과회통』(1800년)을 들 수 있다. 또한 여태까지의 한의학 흐름을 간결하게 압축시킨 황도연(1808~1884)의 『의종손익』, 『의방활투』, 『방약합편』은 한의학의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편 최한기는 『신기천험』(1866년)을 써서 18세기 서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정리, 소개 하였다.

백과 사전적 지식의 추구하고 관련해서는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와 이규경(1788~1856)의 『오주연분장전산고』의 저술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임원경제지』는 그 때까지 논의된(서양과학 논의까지를 포함하여) 농업 수산, 양

논고 II

생, 의학, 가정생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저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당시 세간의 관심을 끌던 사항(상당수가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고증한 ‘19세기 지식의 보고’이다. 이밖에도 유희(1773~1837)는 『물명고』(1824년)에서 박물학적 관심에서 생물과 무생물 등 천 여종을 정리하였으며, 김려(1766~1822)는 『우해이어보』에서 경상도 진해 앞바다의 어류와 패류를, 정약전(1758~1816)은 흑산도 앞바다의 어류를 관찰, 정리하였다.

농학 분야에서는 고구마의 이식을 꼽을 수 있다. 서유구는 이전의 『감저보』, 『감저신보』를 참조하여 『거보』라는 책을 써서 고구마의 재배와 이용 방법을 개선하였다. 고구마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작물이다.

지금까지 살핀 대로 17세기~19세기의 실학적인 과학기술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좀더 확실하고 효용 있는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였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근대화의 강한 내부적 전통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일본과 비교한다면, 일본은 난학[서양 학문]을 공부하는 수효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았으며, 그들이 개항 이후의 근대적 개혁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4. 실학, 과학기술, 그리고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실학적 과학기술의 핵심은 경기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의 중심 서울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서울을 분리한다 해도 실학적 과학기술과 경기도의 인연은 작지 않다.

인물로 보면 실학의 중요한 학파인 성호학파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성호 이익(1681~1763)도 자신의 저술 대부분을 안산 침성촌에서 썼다. ‘조선 종두법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종인은 포천에서 인두법을 시술하여 백발백중의 효과를 보았으며, 19세기 최고, 아니 조선 최고의 과학사상가 최한기는 개성을 배경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학문을 쌓아 나갔다.

문물이나 유적으로 볼 때에는 지도 『경기도』와 화성[수원성]이 주목된다. 『경기도』는 엄밀하게 그려진 지도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화성은 조선 후기 건축의 백미로서 당시 과학기술을 응집시킨 결정체이다. 찾으면 더 많은 인물과 유물이 수도룩하겠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익, 이종인, 최한기 등에 대

해서만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한다.

1) 안산 첨성촌의 이익-성호학파의 창시자

이익은 여주 이씨로 아버지 이하진의 유배지인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작고한 다음에는 고향인 경기도 안산의 첨성촌에서 평생을 살았다. 스물다섯 살 때 한 번 과거에 응시한 적도 있지만, 이름을 격식에 맞지 않게 써서 낙방하였으며, 이후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평생 글을 읽고, 쓰고, 제자들을 길렀다 그의 대작 『성호사설』(30권 30책, 총 3007항목)은 이러한 그의 학문의 결실이었다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았고 또 집에 책이 많았던 이익은 중국을 방문한 일이 없으면서도 당시 중국에 소개되고 있던 많은 서양 과학 기술에 대한 책과 기독교에 대한 소개를 다 얻어 볼 정도로 많은 책을 구해 읽었다. 이런 내용이 『성호사설』에 많이 실려 있다. 『성호사설』의 과학기술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지구설이다 당시 지식인들은 ‘천원지방설’, 곧 하늘을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양 책에서 본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은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게끔 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익은 만일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어디나 주변이 될 수 있고,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당시 조선의 지식계층에 만연되어 있던 ‘모화설’을 벗어 던지는데 큰 몫을 하였다.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과 관련해서 이익은 또한 ‘지구가 둥글다면 왜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호기심을 품었으며, 그것이 지구 중심에서 무엇인가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힘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과 비슷하다 이 밖에 『성호사설』에는 서양화의 원근법, 안경과 렌즈에 대한 지식(오목거울을 불을 내는 방법), 전기(비단옷 또는 고양이털을 비빌 때 생겨나는 불꽃), 불에 타지 않는 석면 등 50건 정도의 서양과학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과학 기술까지 합치면 수백 여 항목이 될 것이다. 특히 서양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성호 이익이 처음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소개하는 항목이 적다 해도 그 가치가 매우 빛나는 것들이다.

논고 II

2) 포천의 이종인 - “조선 종두법의 아버지”

개항 이후의 지식영, 당대의 정약용에 둘러서 그의 종두법이 평가절하 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 19세기 종두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포천 사는’이종인이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 책과 자신의 경험을 합쳐 『시종통편』(1813년)이라는 책을 펴냈고, 그 책이 나온 이후 민간에 급속하게 인두 종두법이 퍼져나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시종통편』은 수없이 필사되었으며, 이웃 중국에서도 이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1835~1849년 사이의 저작)에는 이종인의 『시종통편』이 나온 이후 “근세에 종두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였다. 민간에서는 인두법을 시술하는 ‘전문적인 의사’가 자생하여 이 일을 맡았다.

오늘날 의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나 안정성 면에서 인두법과 우두법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다지 크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종인의 말마따나 그는 100에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그의 덕택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염병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그의 업적은 더 이상 다산이나 지식영의 그늘에 가려져서는 안된다.

3) 개성의 최한기 - 9세기 최고의 사상가

혜강 최한기(崔漢綺:1803~1877)는 19세기에 우뚝 선 사상가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개성을 배경으로 학습하고 저술하였다고 한다 엄청나게 많은 중국책을 중국에서 사다가 읽었으며, 또 엄청나게 많은 저작을 쏟아 냈다. 그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천문학과 의학, 물리학, 수학, 농학, 지리학을 비롯해서 행정학, 정치학, 세계 정세 등에 이르기까지 안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박성래 교수는 그의 과학 중 흥미로운 것 몇몇을 뽑아 보았는데, 여기서 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뉴턴의 만유인력, 케플러의 3법칙,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 온도계와 습도기, 전기의 인력과 척력, 전기 통신으로 런던과 파리가 서로 연결된 사실 등이 보인다. 화학분야에서는 56가지의 화학원소를 소개하였는데, 산소를 ‘양기(養氣)’, 수소를 ‘경기(輕氣)’라고 표현하였다. 또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것으로, 전기 분해하면 산소가 3분지 1, 수소가 3분지 2가

논고 II

된다는 식의 설명도 보인다. 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사용되던 도시가스를 소개했으며, 황산·질산 염산 등의 물질에 대한 설명도 보인다. 의학에서는 근대 서양 해부학과 생리학, 약리학 등을 소개하였다. 몇몇 예를 들었지만, 그가 읽은 것은 당시 서양 과학의 거의 전 분야에 관한 것이었으며, 수준도 결코 낮지 않았다. 그는 단지 호사가적(好事家的)인 취미로 서양과학기술을 살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펼쳐 나가는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인 세계관, 사해 동포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사상의 자양으로서 활용하였다. 그가 서양의 과학기술에서 얻고자 한 것은 만질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자연세계의 물질적 토대의 마련이었다. 그는 이런 사상을 전통적인 사유와 결합시킴으로써 “기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체계를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동양 3국을 통틀어 가장 넓고 깊은 경지에까지 나아갔다.

(전재를 허락한 경기도 박물관측에 감사 드린다.)

안 산 문 단

경기도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지난 10월 26일 부천시 중앙공원에서 개최
되었던 제2건국 백일장에 안산시 대표로 참가
하여 입상한 사람들의 작품을 신습니다.

안산문단

중등부/장원

그 속 에서

송은혜/부곡중 3

작게 모은 손바닥
틈을 막아 채워주는
물 한방울이 있다.

곧게 펼친 손바닥
틈을 뚫고 식혀주는
바람 한줄기가 있다.

높이 뻗은 손바닥
틈을 덮고 감싸주는
하늘 한조각이 있다.

굳게 잡은 손바닥
각지 끼고 힘을 주는
당신이 곁에 있다.

순간 순간
나를 스치는 이웃 속에서
오늘도 나는,
하루를 더해간다.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일반부/차상

도공의 기도

정순용/본오동 한양A

풀잎 위를 구르는
아침이슬의 영롱함을
두손에 받쳐들고
애절하게 기도 드리웁니다
신·령·님

저의 혼이 되게 하옵소서
타고 남은 재 하나에도
저의 혼이 깃들게 하소서

바람인듯 일렁이는
작은 잎새의 몸짓에서도
저의 혼이 묻어나지 않도록
오직
이 흙과, 불과,
저의 영혼만이
빛어지게 하소서

밝은 정한수...
천년 도공이고 싶은
애절함으로

이봄 죽어 뜨거운 불로
다시 재가 되게 하소서

흙이 되게 하소서

안산문단

일반부/차상

힘

염연숙/본오동 한양A

씩어가는 고기를 먹는
까마귀를 보면서
어설피게 약해져 있는
내 모습에 연약함을
위로 받는다.

순수한 팬더곰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설피게 약해져 있는
내 모습에 연약함을
위로 받는다.

동서남북 철새 없이
돌고 돌고 돌면서
어설피게 약해져 있는
내 모습에 힘을 받는다.

인도양 태평양 고래가
울고 노는 모습 보면서
어설피게 약해져서는
안되겠다는 힘과 용기를
배운다.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초등부/차상

스 승

김성훈/본원초 4

서당에서 웃음 소리난다
한 아이의 서투른 글 소리에
동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스승님의 시조 소리가 들려온다
문 밖의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서당에서 울음 소리난다
졸던아이 스승님께
회초리를 맞는다

서당에서 노래 가락 들려온다
나비야 청산가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스승님의 노래가락에
동무들 어깨 춤을 춘다

서당이 조용하다
스승님이 꿀단지애 손을 놓자
모두들 숨 죽여 기다린다

안산문단

고등부/차하

도 자 기

김정은/대부종합고 2

손끝에 기가 모인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내 나라, 내 땅의 흠을
내 선조의 흠을
범접해 본다

먼 옛날,
조선 도공의 서글픈 손길로
아니, 한 맺힌 눈물젖은 손길로
나는 감히 내 조국의 흠으로
자기를 만든다

화염에 휩싸인 수십일
이국 땅, 아스라히 사라진
조선 도공의 피맺힌 사연이
굳어 버렸다
내 조국, 내 피가 끓어 버렸다

아아,
화염속에 태어난 순결한 백자
피 맺힌 설움은 어찌하고
백색의 순결만 남아 있을고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초등부/차하

힘

김미연/선부초 3

혼자서는 혼자서는
살수가 없어

서로서로
손 잡고 같이 삽시다

한 사람이 약해지면
한 사람이 힘을 주고

두 사람이 약해지면
두 사람이 힘을 주고

혼자서는 혼자서는 못 살아
다 같이 힘 모아 삽시다

안산문단

고등부/차상

함께! 하나의 힘으로

김소희/동산고 1

“옆집에서 돌이 생일이라 떡을 했다고 가져왔네요.”

“맛있겠구려. 그럼 우리도 전을 좀 담아 보냅시다.”

“네, 그래야지요.”

이웃과 친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에 있는 남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웃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그래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서로서로 힘을 합하면 안될 것이 없음을 모두가 굳게 믿었습니다.

정이 많은 한반도 대한민국.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나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서로가 협동하는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두레, 품앗이, 계, 향약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였지요. 언제나 훈훈함이 넘치는 따뜻한 나라였던 대한민국…….

그러던 이 땅에 도시가 발달하고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라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거듭되는 발전 속에서 하나 둘씩 예전의 모습이 없어져 갔습니다.

한옥집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던 작은 마을엔 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졌습니다. 조용한 어촌 마을엔 커다란 공장이 들어서고, 농촌 역시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아주 발전된 나라의 모습.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기뻐하고 뿌듯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지!”

이 말에 입을 모았습니다. 발전은 모든 것을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발전 속에 미래를 꿈 꿔왔습니다.

그런데 결코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발전은 좋은 것이라고 나쁜 것은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결코 없을 거라…….

하지만 현대, 현대화, 발전 더 발전만을 외치던 사람들은 육중한기계에 억눌려 점점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타주의는 무서운 이기주의를 낳았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던 사람들은 문을 꽂아 버리고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며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 또 바뀌어 있을 세상 속에서 살아 남기위해서 남을 이기려고 애썼습니다. 누군지 뒤쳐지면 차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나 먼저! 나만!’을 외치며…

사람들은 이미 ‘우리’라는 말을 잊고, 나’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은 언젠가 혼자 힘으로는 안되는 것이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혼자서 힘든 일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혼자서 힘든 일은 여럿이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던 것처럼 모여서 함께 하면 훨씬 더 쉬운 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실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협동심, 우리… 혼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이며, 소중한 것이라는 그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오직 한가지 방법 그것은 모두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제2의 건국을 외치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모두가 하나되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민족의 전통인 협동정신을 살려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제2의 건국은 아주 성공적일 것이고, 아주 훌륭할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하는 우리의 제2의 건국은 밝고 희망찬 것입니다.

안산문단

중등부/차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뿐 이었다

이해정/부곡중 2

얼마 전 우리나라와 중국 등지 그리고 일본사이에는 후소샤에서 발행된 역사교과서가 집중 대상이었다.

이유는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 새역모에서 집필하고 산케이신문의 계열사 겸인 후소샤에서 발행한 그 교과서! 수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그 왜곡 교과서는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았다.

정확히 언제였었는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 지난 여름방학 때 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을 막기 위한 하나의 시위에 동참했다. 그 시위는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된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다운 시키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동시 접속을 해서 다운시킨다는 것이 우리 사이 비 시위대의 목적이었다.

시위 시간에 달하자 나는 열광적으로 F5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사이트는 모두 다운되었고 우리의 목적은 성공했다. 나는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뿐이었는지, 꼭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망연자실한 나는 종전의 웃음은 뒤로 하고 울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뒤 떨어 지는 것인지, 얼마나 더 가야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시작한 원망은 결국 홍선대원군에게 돌아갔다. 페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달려들 때까지도 왜국을 말하던 홍선대원군. 하지만 점점 그 원망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그 치욕을...

후소샤 교과서의 왜곡 중에서도 임나일본부설은 나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부근에 임나일본부라는 곳이 있다는 이 설은 한·일 양국의 학자들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실렸다.

이는 분명한 침략 조장이다 임나일본부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교과서. 일본의 교과서는 침략을 가르치는구나!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하지만 그 뿐이 아니었다. 종군위안부

그러니까 정신대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반성도, 아니 사실을 밝히지 않는 교과서,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하루에도 몇번 씩 성관계를 가져야 했던 그녀들의 아픔을 후소샤의 교과서는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아! 일본의 교과서는 거짓을 가르치는구나!’

아찔했다. 그런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지 하지만 내게 더 큰 아픔은 우리정부 그리고 우리국민의 안일한 태도였다.

문화개방을 연기하겠다는 식의 대응.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했다 다시 돌려보내는 무책임한 태도, 가수에게나 빠져 있는 10대들, 멋내기엔 바쁜 20대들, 돈벌기에 바쁜 30대들, 살기에 바쁜 40대들,

가슴이 아팠다. 약한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서러울 줄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일본에게 복수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보다 나아지자는 것이다. 경제적 발달이 아니더라도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질서있는 관중문화, 일본의 프로그램을 그리고 노래를 표절하지 않는 기획문화. 또한 쓰레기 줍는 일 하나까지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적어도 일본과 동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나 하나 짬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만 더 나라일에 신경쓰는 건 어떨까? 아침에 신문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아는 국민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아직 일본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나부터 나서는 모습 우리가 진정 바라던 유토피아의 세상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안산문단

초등부/차상

이웃 과 함께

정세은/본원초2

내가 사는 동네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용석’이라는 아이가 있다. 이사 와서 처음 용석을 봤을 때 며칠 동안은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그 아이를 피해 다녔다.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성당에 갔는데 거기서 난 용석을 또 보게 되었다. 알고 봤더니 용석이는 내가 새로 다니게 된 성당에 다니는 나랑 같은 9살이었다. 용석이는 어렸을 때 음주운전을 한 어떤 아저씨 때문에 두 다리를 잃고, 걷지 못 하게 되었다. ‘저 애도 얼마나 걷고 싶을까?’ 엄마가 밀어주시는 휠체어를 타고 성당 엘리베이터를 타는 용석을 보니까 내 마음이 몽클했다. “엄마, 휠체어를 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용석이를 친 그 아저씨가 미웠다.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음주 교통사고가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가 음주 교통사고 1위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니!”

그 날 저녁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며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아저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히는 장면이 나왔다.

“쫓 쫓, 저게 무슨 망신이야!”

난 너무 아찔해 눈을 감아 버렸다. 그 아저씨는 술이 너무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낮에 본 용석이 얼굴이 떠올랐다. 용석을 친 아저씨가 저렇게 했을까 싶으니까 TV에 나오는 아저씨 얼굴이 미워 보였다. “각자 기본을 바로 세워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발짝 다가 갈 수 있는 거야.”

평소에 술을 잘 못 드시는 아빠도 목소리를 높여 썼다.

자기만 빨리 가려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나 자기 집 앞이 아니라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모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 일이 있고부터 용석리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게임도 같이하고, 종이접기도 같이 하면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잘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웃과 함께 도와 가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느끼는 소중한 시간들.

용석리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친구이기도 했다.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엄마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는 곳에 누군가가 나무 젓가락, 비닐 봉지, 깨진 그릇을 버렸던 것이다.

“기분을 바로 세워야 우리 아파트도 살기 좋은 1등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너 같은 어린 아이도 아는 사실을 왜 실천을 못할까? 정말 한심하구나.”

엄마는 맨손으로 악취가 나는 음식물 속에서 깨진 그릇을 골라내다가 결국 손을 베고 말으셨다.

엄마는 피 나는 손가락보다 마음이 더 상하신 것 같았다.

남이 안본다고 자기만 편해지려는 마음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용석이가 나에게 깨닫게 해 준 함께 산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나 음식물에 아무 쓰레기나 버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 때, 우리는 선진국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안산문단

초등부/차상

이 웃

김용훈/본원초1

나에게는 아름다운 이웃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난 나의 이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분리수거함에 넘치는 종이들과 플라스틱, 강통들을 가지런히 청소해 주시며 아직 쓸모있는 물건들을 모아 가시는 분이시죠. 나는 가끔 할아버지의 리어커에 엄마가 채곡 채곡 쌓아 묶어 놓은 신문 다발을 몰래 갖다 놓곤 합니다. 나의 이웃에 할아버지가 계시어 다른 동네보다 깨끗합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신문다발이나 몰래 갖다 놓을 수 있을 뿐 이웃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는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 청소를 해주십니다. 내게 할아버지 같은 이웃이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일반부/차하

한 국 인

김순애

수리산에서 바라보는 안산의 경치는 꽤나 역동적입니다.

만추의 가을 공기는 코끝을 자극할 정도로 냉기를 품고 있습니다. 쉼 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들과 움직이는 것들이 어우러져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투명한 계절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계절 가을이 주는 아름다움은 일상 생활에서의 지친 몸을 거뜬히 환기시켜 줍니다.

사계절이 있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을 온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이는 된장의 맛을 아는 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삶의 참맛을 아는 이요,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줄 아는 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세글자로도 고향을 떠올리며 흙색깔보다 검은 어머니를 그리워 합니다.

봄이면 역동치는 생명감 때문에 여름이면 땅거미 속에 모기떼들 때문에 그리고 가을이면 깊이 패인 주름 속에서 볼 수 있는 웃음 때문에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자식을 염려하는 따뜻한 정과 사랑은 우리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은은함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 소리치며 바라보는 곳은 굽이굽이 엮어져 있는 산자락들 속에 끊을 수 없는 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과 생활, 미래가 있어 좋다고 공기가 좋아 좋다고 사계절이 있어 좋다고 모든 것이 자랑이요. 홍보이지만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삶입니다.

서양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서양옷이 아무리 비싸다 하여도 서양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나는 싫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냉정함이 못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싸워도 소주 한 잔으로 그 정이 깊어 가고 대물림으로 받아 입은 옷이 밝았지만 그 냄새로 묶어 두고 맛보다는 깊이로 알 수 있는 우리네 한국인들은 쉬이 꺾이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매력을 사랑합니다. 한국인, 가슴 뿌듯함 벽차 오릅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안산문단

일반부/차하

스 승

이명희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 스승이라는 낱말을 별로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일하게 된 청소년공부방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부를 때는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솔직히 아줌마라고 불릴 때보다 ‘선생님’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 아이가 더 예뻐 보이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아줌마라고 불려졌을 때엔 나의 옷차림이나 허물어진 몸매 등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나 ‘선생님’이라 불려졌을 때엔 저 아이가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아줌마스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었을까? 순간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지식을 발견했을 때 라든지 엄격한 얼굴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 줄 때는 유아들까지도 ‘아줌마’에서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바뀌는 듯하다. 복잡 다난한 세상의 여러 분야, 빠르게 변화해 가는 전문분야, 상업화 된 교육시장이 양산해낸 수 많은 선생님들!

학습지선생님, 학원선생님, 종이접기선생님, 놀이방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많아도 스승은 없다는 얘기가 충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리는 듯 하다. 어쩌면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스승이 없어진지도 모르겠다. 학교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기보다 애처롭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왜일까?

학교 바깥에서 어릴 때부터 온갖 선생님의 학교교육에 들어와서는 학교선생님들이 통제하기가 더 힘든 아이들이 되고 만다. 뻔질뻔질 때가 묻어서 학교에 들어와 담임선생님도 학원선생님들처럼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 줄 것으로 착각하거나 이미 습관화 되어버린 제멋대로의 버릇을 계속하게 된다. 이런 와중에서 학교선생님들은 체벌이 아니면 통제불능함을 느끼고 체벌을 가하면 제자식 끔찍이 여기는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고소하는 개행까지 감행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에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굳이 교육자적인 고민을 할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스승이 존경할 대상임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모범을 보여 주기 때문이리라.

학교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하찮은 공부방선생님이라도 아이들에게 본 받을 부분을 몸소 보여 줄 때,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스승님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비로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러프지역(rough地域) → ① 잡초 지역 ② 부적정 지역

【용례】 배우 텔런트 등 연예인 중심의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음반, 영화 사업까지 함께하는 대형 업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 컨설턴트(consultant) → 상담사

【용례】 그러면서도 코스는 페어웨이와 그린을 제외하면 무성한 갈대밭과 깊은 러프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페어웨이(fairway) → 적정 구역

【용례】 위 용례 참조

■ 카니발(carnival) → ① 축전 ② 잔치

【용례】 80일간 80개국 참가 ‘흙의 카니발’

■ 콜 서비스(call service) → ① 호출 지원 ② 호출 서비스

【용례】 11월부터 서울에 콜 서비스가 되는 ‘브랜드 택시’ 1만 5천대가 운영된다.

■ 애니메이터(Animator/Animator) → 만화 영화가

【용례】 장편 애니메이션 “백사전”에 애니메이터로 참여했고……

■ 풀 애니메이션(full animation) → 순수 만화 영화

【용례】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작화 수를 충분히 늘린 ‘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 프로모션 (promotion) → 흥행

【용례】 일본에서 자우림의 프로모션을 담당할 유 이사

■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 ① 삽화 ② 도해

【용례】 만화가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주목받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 유틸리티 (utility) → 공공 사업

안산문단

중등부/차하

함 께

최희진/시곡중3

‘소외된 사람들’...소외됐다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들……

‘장·애·인’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한다. 그들과 우리 ‘함께’살아가기에 이 세상에 ‘정’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아 서로 가족같이 지내던 우리에게 상처 입은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연.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앓고 다니던 학교에 융화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시골 요양 중에 우리 학교이야기를 듣고 전학을 온 아이였다. 8살이나 되었는데도 잡아 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아연이를 받아들였다.

친구, 동생, 언니, 누나로... 아연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망설임은 없었다.

그건 바로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 예쁜 웃음을 보인 아연이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 뒤로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변했다. 우선은 학교 등·하교길에는 항상 아연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것이었다. 통학버스가 다니기는 했지만 집까지 가는 길이 3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6학년 언니들이 아연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버스로 돌아오곤 했다. 우리는 언니들이 올 때까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생활도 아연이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급식, 수업 등의 우리들의 학교생활을 내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비단 이런 노력은 우리들만 한 것이 아니었다. 학교시설이 변하기 시작했다. 늘상 우리가 따라 다닐 수는 없었기에 복도를 비롯한 모든 벽면에 아연이가 잡고 걸어 갈 수 있게 손잡이를 설치했다. 또한 위험한 놀이기구를 고치거나 안전한 것으로 바꿨다. 모든 것이 우리와 아연이의 좀 더 편한 생활을 위해 조금씩 변해갔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은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연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의 놀이에 참여하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직도 부정확하지만 의사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더 장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는 아연이의 모습이였다. 언니들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과 동생들을 챙겨 주는 아연이의 모습은 정말이지 천사가 내려온 듯 했고, 우리는 그런 아연이를 끌어안고 평평 우시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며 난생 처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함께’라는 기분을 알게되었다.

졸업하고 또 졸업하고… 언니들이 연달아 학교를 졸업하고 내차례가 되었을 때… 난 친구들과 걱정에 휩싸였다.

“우리가 졸업하면 아연인 어찌지?”

그 땐 정말 우리가 없으면 아연인 아무것도 못 할거라고 생각했었다. 심각한 나와 친구들. 그런데 그건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음을 우린 멍청하게도 알지 못 할거라고 생각했었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5학년 후배가 있었으며 아연이는 이제 혼자도, 아기도 아닌 어엿한 2학년 학생이 되어 있었다. 졸업식이 돼서야 이 사실을 깨우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한심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커다랗게 웃어댔다. 이제 우리에게 아연이는 장애인인 아닌 몸이 좀 불편한 ‘우리와 똑같은 아이’가 된 것이었다.

“이크 ~ 조심해야지.”

지금도 가끔씩 마주치는 장애아동. 그리고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소수의 사람들… ‘장애’라는 것은 결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님을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

흔히 TV에서는 ‘몸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라는 식의 비슷한 문구들을 보내곤 한다.

마음의 장애… 몸이 장애… 이 둘중에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안타까운 것인지에 대해 나는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하지만 정말 밝고 밝게 웃는 사람은 몸은 정상이나 거짓웃음으로 가득찬 사람보다 함께 살기에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함께’이기에 ‘정’과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있다는 것을 말이다.

안산문단

초등부/차하

함 껌

황세연/호동초

우리들은 늘상 “Welcome to Korea”라고 외치며 다닌다. 하지만 냉정하게 딱 꼬집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자랑스럽게 올 곳이 되는가? 너무 우수한 민족성을 지닌 대한민국을 현재는 IMF, 한일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 등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떨어뜨리고만 있다.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다시 인정 많은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거리로 나가 한바퀴 뒹 돌아보면 가게 간판, 사람들의 옷 등등...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다. 유명 캐릭터, 메이커가 국산이더라도 대부분이 외래어이며, 외래어이면 다 좋고 멋져 보이는 줄 알고 말도 안되는 말들을 갖다 붙인다.

지금 내가 예를 든 것처럼 꼭 언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유형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동경하는 일이며 우리나라를 여러 이유로 과소 평가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자신의 나라 언어에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 관광객이 질문을 했을 때 세계 공용어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답해 주는 일이 잦다고 한다. 일본 역시 애국심이 강해 수입쌀보다 일본쌀이 훨씬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쌀을 더 많이 구입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국들처럼 수입품보다는 국산품을 외국어보다는 한국어를 자주 애용하고 아낀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곧 나라사랑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도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둘째,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사회를 만들자.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이 있다. 꼭 말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해

제2의 건국 운동실천 2001 백일장 당선작

줄 것이다. 서로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양보하면 이웃끼리, 주민끼리, 나중엔 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사회가 조성되어 한 나라가 밝고 새롭게 조성 될 수 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랑과 양보를 나눈다면 나중엔 지구촌 모두가 밝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을 충실히 해 발전된 국가의 길을 나아가자. 아무리 사회가 따뜻하고 밝아져도 나라가 발전되는 데의 중요한 요소인 경제가 빠지면 모든게 도로아미타불이다. 아름다운 사회에 경제발전까지 확실해 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경제발전이란 것은 꼭 나라의 돈이 많아진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다. 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가 고루고루 같이 받쳐 줘야 비로소 경제발전이 제대로 선다고 볼 수 있다.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며, 견학도 자주 하는 등 문화활동과 학업을 비중있게 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풍양속을 되살리는데 힘쓰자.

도덕시간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미풍양속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회노애락 모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풋풋한 정을 확인하고는 했는데 지금 우리는 기계처럼 자기 할 일만 딱딱 하고는 다른 아름다운 일, 꼭 필요한일에는 신경을 끄며 그렇게 생활한다. 지금처럼 ‘나’, ‘너’처럼 따로따로가 아닌 ‘우리’, ‘하나’란 이름으로 모두 그렇게만 지낸다면 우리 조상들의 정겹고 따스한 미풍양속을 되돌리는 일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라는 주제로 제2의 건국운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선진국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았다. 그 방법으로는 애국심을 갖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사회를 만들며, 학업과 문화활동을 충실히 하고 미풍양속을 되살리는데 힘쓴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글에 나온 의견 이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명목아래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이기주의가 아닌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도 발견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과 주장을 가슴 깊이 지니고 함께 모여 밝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는 사회를 이룩해내자.

■ 고향마을 한가위 민속놀이 큰잔치



우리원에서는 9월 27일 추석을 앞두고 고향마을 아파트에서 사할린 귀국 동포들을 위한 민속놀이 큰잔치를 마련하였다 문화관광부, 안산청년회의소, 시민화합추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떡치기, 풍물놀이, 투호놀이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 대부도향리지편찬위원회 발족식 및 현판식

대부도향리지편찬위원회 발족식이 대부도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으며 대부출장소 문화센터 2층에 편찬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갖었다.

■ 경기도 제2건국 백일장

10월 26일 부천시 중앙공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제2건국 백일장에 일반부 및 학생부에 40명의 안산시 대표가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중등부 시부문 장원을 비롯한 16명의 입상자가 안산에서 나왔으며 이 날 대표로 참가한 사람들은 지난 5월 성호백일장에서 입상한 사람들이었다

■ 제 18회 잣머리성황제



제18회 잣머리성황제가 11월 15일 잣머리성황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잣머리성황당의 단청을 새롭게 하고 일주문도 새로 세운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잣머리 성황당 옆에 초가집도 건축하여 30여년만에 유가의 재현도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2001 지역문화행정 워크샵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속초 한화콘도에서 개최된 2001 지역문화워크샵(문화관광부 주최)에 전국 시·도 문화예술과장들과 전국문화원장 4명, 사무국장 8명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우리원 이현우사무국장이 참여하였다.

■ 2001 문화재 관계자 연수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계연구원이 개최한 2001 문화재 관계자 연수에 우리원 이현우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과정을 이수하였다.

■ 경기문화재단 공청회

11월 28일 개최된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에 대한 공청회에 우리원 이정태원장이 참석 하였다.

■ 경기 지역문화탐방 및 대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포천에서 개최된 경기지역문화탐방 및 대화에 우리원 이정태원장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이날 안산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의 감사패를 받았다.

■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논문(사료)공모전 시상식

12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논문(사료)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부도지명유래에 대한 고찰」이라는 원고지 270매 분량의 논문을 제출하여 사료부문 장려상에 당선된 우리원 이현우사무국장이 상을 받았다.

■ 새로운 문화가족을 환영합니다.

(10월 1일~12월 15일까지 가입하신 분들)

- 운영위원 : 양봉애, 김대자, 김민선, 이정자, 맹민숙

안산문화원 홈페이지 개설 www.ansanculture.or.kr

오랜 준비 끝에 지난 2월 안산문화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주소는 www.ansanculture.or.kr이며 야후, 네이버 컴 등 주요 서버에서 한글검색(안산문화원)으로 찾을 수 있다. 안산 스트리트, 안산일보, 안산뉴스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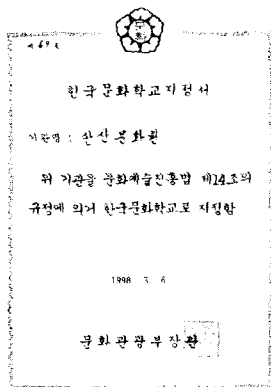
◆ 안산문화원 홈페이지의 내용

- 문화원 소개 : 개요/연혁/시설현황/조직현황/위치안내
- 문화원 소식 : 문화원의 행사/모임/공지사항
- 회원가입 : 회원가입안내/회원가입(인터넷으로 가입하기)
- 안산문화학교 : 문화학교 소개/강좌별 안내
- 문화원 행사 : 연중 행사계획서/월별 행사계획서
- 발간도서 목록 : 안산문화원에서 발간한 도서 소개
- 안산향토사연구소 : 운영규정/조직현황
- 안산경기민요합창단 : 활동연혁/단원소개/연습시간/단원모집
- 안산시 역사 : 안산시 연혁/안산시 유래/지명유래/국가지정문화재/경기도문화재
향토유적/비지정문화재/향토유물/안산의 전설/옛노래
- 안산문화예술행사 : 성호문화제/별망성예술제/단원미술제
- 문화칼럼
- 계 시 관
- 이 달의 안산시 주요 문화행사
- 이 달의 전국 주요 문화행사
- 이 달의 문화인물
- 이 달의 세시풍속

문화관광부/한국문화학교 지정 지역문화학교

안산문화학교 강좌 안내

과 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강 사	비 고
서 에	목·금	10:00~12:00	30	임 인 자	연 중
한 국 화	월 화	10:00~12:00 14:00~16:00	20	박 국 현	연 중
서 양 화	화·수	10:00~12:00	20	김 영 구	연 중
글쓰기지도자	토	10:00~12:00	20	이 정 소	5개월과정
풍 물 놀 이	금	19:00~21:00	30	천 병 희	연 중
사 물 놀 이	금	15:00~17:00	30	최 오 진	그룹지도
대 금	화	18:30~20:30	20	김 일 규	연 중
단 소	수	17:30~19:30	20	장 세 철	연 중
경 기 민 요	수·목	15:00~16:20	50	박 순 금	연 중
전 통 다 도	월	14:00~16:00	20	조 영 란	연 중
한 지 공 예 (다종이인형)	월	14:00~16:00 19:00~21:00	20 20	김 은 숙	연 중



- ▶ 접 수 : 수시접수(연중강의)
- ▶ 수강장소 : 문화사랑방(고잔동 올림픽기념관 內)
- ▶ 수료생(3개월이상)전원 문화관광부장관 수료증 발급
- ▶ 문 의 처 : 안산문화원 사무국 (031)480-9823
홈페이지 www.ansanculture.or.kr

◀ 안산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문화학교입니다.

안산문화원회원 가입안내

- ◆ 안산문화원은 법률 제4718호의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 단체입니다.

- ◆ 위의 법령에 의해 우리원에서는 다음의 5가지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향토고유문화의 보존 전승 사업
 - 향토사료의 수집보존 활동 사업
 - 지역사회의 교육활동 사업
 - 홍보전시 활동 사업
 - 지역문화의 계발 활동 사업

- ◆ 안산을 사랑하고 안산지역의 향토문화 활동사업에 동참하실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이 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회원은
 - 운영위원(월회비 1만원)
 - 일반회원(월회비 2천원)으로 구분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문화원 회원이 되시면
 -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 문화원에서 발행되는 「안산문화」를 비롯한 모든 책자를 정기적으로 보내 드립니다.
 -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향토유적답사 등 모든 행사에 우대 초청됩니다.
 - 음악회, 연극, 무용, 국악, 등의 행사 초대권을 우송해 드립니다.
 - 문화학교 수강에 우선권을 드립니다.
 - 운영위원은 총회 의결권이 있습니다.


- ◆ 전화문의 안산문화원 사무국 전화 480-9823~4 팩스 480-9824

- ◆ 회원가입 방법
 - 문화원을 방문하여 직접 가입
 - 전화로 가입
 -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가입

안산지역정보의 중심 - 안산스트리트

<http://www.ansanstreet.co.kr>



 안산스트리트

TEL : (031) 405-4095 FAX : (031)405-4096

E-mail : chlucci@yahoo.co.kr

시립루씨어린이집

-루씨동창회 위탁 운영-
(최용신선생님 모교)

영아반·유치반 운영

전화 : 406-7137 / 407-3396

안산시 본오3동 1138-1